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 Economist

2005. 8. 23 www.econopia.com

## ‘현대 마지막 家臣’ 김윤규 부회장 물러날 때 5번 농친 경영인 비극

**특집** CEO 8인의 심중고백  
**피하고 싶은 순간들**

신세계가 총무로에 1800억 쏟아부은 계산법

재계 유명 인사들이 가는 식당①  
**남대문 막내횃집**

3,500원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방한한 다니자와 일본 트랜스코스모스 부회장

# “한국 엔지니어 채용 더 늘릴 계획”

1956년 와카야마시, 일본 긴키대학 졸업, 1986년 트랜스코스모스 입사

“한국 엔지니어는 전문성 면에서 일본인보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신입 엔지니어들은 눈에서 빛이 나죠. 우리가 한국인 엔지니어를 영입해 가는 이유입니다.”

지난 7~8년간 300여 명의 국내 프로그래머를 영입한 다니자와 도시카즈(50) 일본 트랜스코스모스 부회장의 한국인 예찬론이다. 지난 9일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방한한 다니자와 부회장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나치게 프라이드가 높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만큼 우수한 인력”이라며 “그동안 채용한 직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

문에 계속 한국인 스카우트를 늘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은 일본인과 정서가 비슷하고 문화적인 적

응력도 뛰어나다”며 “더욱이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최적의 인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한국인이 일본 회사에 취업하면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본인과 전혀 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원중에 국적란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인은 더 이상 저렴한 인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청년들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일본에 와서 6개월 정도만 되면 거의 문제없이 의사소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쿄를 기준으로 오키나와보다 서울이 가깝다”며 “트랜스코스모스는 전체 직원의 90%가 외지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랜스코스모스를 “아시아 인력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라고 소개했다. 트랜스코스모스는 시스템통합(SI) 및 콜센터, 웹사이트 구축 등 기업 간(B2B) 정보기술(IT) 사업 분야에서 일본 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회사다. 도쿄 시부야에 있고, 직원만 1만2000

여 명에 달한다.

1998년 자동차 설계 분야에 한국의 중견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시작한 트랜스코스모스는 향후 이 분야에 연간 100여 명의 한국 신규 인력을 등용할 계획이다. IT 분야에도 해마다 약 50~100명을 뽑아 갈 예정이다. 다니자와 부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트랜스코스모스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E]

김태윤 기자 · pin21@joongang.co.kr



사진: 김범동 기자